

고등학생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 실천 및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 조사

Acknowledgment of High School Students' Oral Hygiene Products, Practice and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Survey

오나래*, 서수연*, 정미애**
영남외국어대학교 치위생과*,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Na-Rae Oh(nalae761@hanmail.net)*, Su-Yeon Seo(e-bbii@hanmail.net)*,
Mi-Ae Jeong(teeth2080@kangwon.ac.kr)**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구강위생용품의 인지, 실천실태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도를 조사하여 올바른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K지역 고등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할수록 구강위생용품의 실천도($p < 0.05$)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식($p < 0.05$)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구강위생용품의 교육의 필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강위생용품의 올바른 세치제 사용양 인지에서 모1/3사용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실천도에서는 모3/3사용이 가장 높게 나왔다. 연구결과 구강보건교육에만 국한 되지 않고 실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의 습득경로 대중매체의 경로로 더 보급하고 학교구강보건교육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 중심어 : | 고등학생 | 구강위생용품 인지 | 구강위생용품 사용 | 주관적 구강건강 | 구강보건교육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practice status and perceived oral health awareness of oral hygiene products in high school students and to utilize it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can use the correct oral hygiene products. The results of the self-filling questionnaire survey of 260 high school students in K area were as follows. ($P < 0.05$), which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p < 0.05$). his implies the need for education of oral hygiene products for proper practice in using oral hygiene products. The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was the highest in 1/3, but in practice, the total use was highest. It is thought that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that can affect not only the oral health education but also the practice is needed. For the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in accessing medical institutions due to their studies, the way to acquire oral health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education programs and the implementa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 keyword : | High School Students | Oral Hygiene Products | Use of Oral Hygiene Products | Subjective Oral Health | Oral Health Education |

I. 서론

삶의 여유와 개인 가치에 대한 자각은 문화생활의 기회를 확충함과 동시에 인간의 건강증진 욕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 교류와 협력이 증가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어 국민의 보건의식수준도 상당할 정도로 향상되었다[1][9]. 구강건강은 정신건강과 사회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건강 못지않게 중요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생동안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2]. 구강상병은 그 특성상 범발성이며, 부분 만성질환이고 비가역적이지만 다른 질환과는 달리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에 따라 시간 경제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3]. 그렇기에 성인기보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예방관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진 구강건강관리 및 형성된 습관은 성인의 구강건강의 초석이 된다.

구강보건의 관리에 있어서 학생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특수성을 지니므로 구강보건을 위한 관리 및 예방문제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4][10][14]. 청소년기는 치아우식증이 빈발하고 치은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 구강관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적절한 구강보건지도 및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중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 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구강보건은 학교인구 즉,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계속적 과정으로서 학교보건의 한 영역이 동시에 학교 교육의 일부이다[5][11].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 구강보건교육은 양분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여 평생 동안 자신의 구강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을 통해 형성된 구강보건유지 및 증진 능력을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환경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6][15]. 국내외적으로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실태와 구강건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강위생용품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조사 연구가 있었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K지역에 위치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인식도 및 일반적인 사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구강보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학교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K지역에 위치하는 고등학교 5개교를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선정된 학교는 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학년,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체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고등학생 260명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방법은 각 학교 교장선생님의 허락 하에 담임 교사에게 도움을 받아 조사지침사항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자기기입식에 의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뒤 수거된 설문지는 학교에서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미흡하여 자료 처리에 부적합한 10부를 제외한 250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 자료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인정된 선행 논문 [1][9]에 이용된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설문문항을 기초로 조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항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관한 내용 5문항, 구강위생용품인식에 관한 4문항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 5문항으로 총 19문항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 인식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사용 실태 및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구강위생용품 인지와 사용실태 및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250명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 184명(73.6%), 학년은 3학년 90명(36%), 보호자의 직업은 회사원 144명(57.6%)로 나타났으며, 통학방법은 도보가 129명(51.6%), 월용돈은 10만원 미만 177명(70.8%)로 높았다[Table 1].

2. 구강건강관리행태에 관한 특성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행태에 관한 특성에서, 칫솔질 횟수(1일)는 3회 이상 190명(76%), 1-2회가 60명(2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치제 사용량(1회 사용시) 모2/3가 159명(63.6%), 모1/3이 51명(20.4%)로 나타났고, 칫솔 보관방법은 바람 부는 곳이 113명(45.2%), 한꺼번에 모아보관이 70명(28.2%)순으로 나타났다.

칫솔의 교체주기는 3-6개월이 117명(46.8%), 인지하지 못함이 86명(34.4%)순으로 나타났으며, 칫솔의 휴대 유무에서 휴대함은 202명(80.8%), 48명(19.2%)는 휴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3. 구강위생 휴대용품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 휴대용품 관련 특성에서 휴대목적은 음식물 제거가 111명(44.4%), 치아우식증 예방 46명(18.4%), 구취제거 41명(16.4%)순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품 보관 장소는 휴대케이스 125명(50.0%), 사물함이 57명(22.8%)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Division	N	%
성별		
남자	66	26.4
여자	184	73.6
학년		
1 학년	74	29.6
2 학년	86	34.4
3 학년	90	36.0
보호자 직업		
회사원	144	57.6
공무원	52	20.8
자영업	54	21.6
통학방법		
대중교통	54	21.6
자가용	67	26.8
도보	129	51.6
월용돈		
10만원 미만	177	70.8
10만원 이상	73	29.2

Table 2. Characteristics of Oral Healthcare Behavior.

Division	N	%
칫솔질 횟수(1일)		
1-2회	60	24.0
3회이상	190	76.0
세치제 사용량(1회 사용시)		
모1/3	51	20.4
모2/3	159	63.6
전체	40	16.0
칫솔보관방법		
아무곳	27	10.8
밀폐된 곳	40	16.0
바람부는 곳	113	45.2
한꺼번에 모아	70	28.2
교체주기		
1개월	47	18.8
3~6개월	117	46.8
인지하지 못함	86	34.4
휴대		
유	202	80.8
무	48	19.2
총	250	100.0

4. 구강위생 휴대용품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휴대용품 관련 특성에서 휴대목적은 음식물 제거가 111명(44.4%), 치아우식증 예방 46명(18.4%), 구취제거 41명(16.4%)순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품 보관 장소는 휴대케이스 125명(50.0%), 사물함이 57명(22.8%)로 나타났다. 휴대용품의 휴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46명(58.4%), 불필요하다고 응

답한 경우는 104명(41.6%)로 나타났고, 구강위생용품의 사용방법 지식 경로는 치과근로자로 부터가 137명(54.8%),신문 및 잡지를 통한 경우51명(20.4%), 인터넷 43명(17.2%), 교사수업과정 14명(5.6%)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5.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실천도와 인지도 및 주관적 구강건강도

고등학생들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사용실천도와 인지도 및 주관적 구강건강도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Table 4]와 같다.

칫솔질 횟수에 대한 실천평균은 1-2회 3.31±.567점, 3회 이상 3.66±.529점으로 나타나 3회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p<0.05), 세치제양에 대한 실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휴대용품 교환주기에 대한 실천평균은 1개월 3.88±.647점,3-6개월3.60±.496점순으로 나타났다. 칫솔질 휴대유무에 대한 실천평균으로 휴대3.64±.544점, 휴대하지 않음 3.31±.542점으로 (p<0.05)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칫솔질 휴대필요에 대한 실천평균 3.60±.590점, 휴대불필요 3.54±.511점으로 나타났다.

칫솔질 횟수에 대한 인식평균은 1-2회 3.78±.471점, 3회 이상4.01±.523점으로 나타나 3회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p<0.05), 세치제 양에 대한 인식평균은 모1/3이 3.99±.509점, 전체가 3.97±.569점, 모2/3는 3.94±.513점으

로 1/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휴대용품 교환주기에 대한 인식평균은 1개월 4.19±.491점, 3-6개월 3.95±.526점, 인지하지 못함이 384±.487점 순으로 나타났고, 칫솔휴대유무에 대한 인식평균으로 휴대 4.00±.538점, 휴대하지 않음 3.78±.390점으로 나타났고, 칫솔질 휴대필요에 대한 인식평균은 4.02±.504, 휴대불필요 3.87±.53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3. Oral hygiene products.

Division	N	%
휴대목적		
음식을 제거	111	44.4
구취제거	41	16.4
치아우식증 예방	46	18.4
기타	4	1.6
휴대용품 보관장소		
휴대케이스	125	50.0
자외선케이스	5	2.0
사물함	57	22.8
화장실	4	1.6
기타	11	4.4
총	202	
휴대필요		
필요	146	58.4
불필요	104	41.6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지식경로		
치과근로자	137	54.8
신문,잡지,TV	51	20.4
인터넷	43	17.2
교사수업과정	14	5.6
기타	5	2.0
총	250	100.0

Table 4. Practice, awareness and subjective oral health of oral hygiene products.

Division	구강위생용품 실천도		구강위생용품 인지도		주관적구강건강 인식도		
	t/F	p	t/F	p	t/F	p	
칫솔질 횟수	1-2	3,31±.567	-4,487	3,78±.471	-3,056	1,13±.892	-0,477
	3회 이상	3,66±.529	0,000	4,01±.523	0,002	2,37±.764	0,000**
세치제양	1/3	3,47±.579		3,99±.509		2,71±.807	18,689
	2/3	3,58±.532	2,992	3,94±.513	0,179	1,98±.882	0,000**
	전체	3,71±.617	0,137	3,97±.569	0,836	1,63±1,030	b)c a)c
교환주기	1개월	3,88±.647	3,776	4,19±.491	7,453	2,53±.747	61,777
	3-6개월	3,60±.496	0,000**	3,95±.526	0,001**	2,44±.736	0,000**
	인지못함	3,38±.509	a)b,c	384,±.487	a)b,c	1,31±.858	c(a,b
칫솔휴대유무	휴대	3,64±.544	3,798	4,00±.538	2,688	2,17±.920	3,340
	휴대안함	3,31±.542	0,000**	3,78±.390	0,008	1,67±.996	0,001
칫솔휴대필요	필요	3,60±.590	0,885	4,02±.504	2,299	2,09±.975	0,334
	불필요	3,54±.511	0,377	3,87±.530	0,024	2,05±.928	0,739

*p<.05, ** p<.001

Table 5. Perception and practice of oral hygiene products and subjective correlation of Oral Health.

Division	구강위생용품 실천도	주관적구강건강 인식도	구강위생용품 인지도	구강건강점수
구강위생용품 실천도	1			
주관적구강건강 인식도	0.184, 0.004*	1		
구강위생용품 인지도	0.530, 0.000**	0.55, 0.389	1	
구강건강점수	0.310, 0.000**	0.107, 0.993	0.273, 0.000**	1

*p<.05, ** p<.001

칫솔질 횟수에 대한 주관적 구강건강평군은 1-2회 1.13±.892, 3회 이상2.37±.764점으로 나타나 3회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p<0.05), 세치제양에 대한 주관적 구강건강평군은 전체가 1.63±1.030점, 모2/3는 1.98±.882점, 모1/3은 2.71±.807점으로 모1/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휴대용품 교환주기에 대한 주관적 구강건강평군은 1개월 2.53±.747점, 3-6개월 2.44±.736점 순으로 나타났고, 칫솔질 휴대유무에 대한 주관적 구강건강평군으로 휴대 2.17±.920점, 휴대하지 않음 1.67±.996점으로 나타났다. 칫솔휴대필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6. 구강위생용품의 인식과 실천 및 주관적 구강건강의 상관관계

고등학생들의 구강위생용품의 인식과 실천 및 주관적 구강건강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5]. 고등학생들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의 실천 평균은 주관적 구강건강(P<.05), 휴대용품 인식평균(P<.05), 구강건강점수(p<.05)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휴대용품 인식 평균은 구강건강점수(p<.05)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5].

IV. 고찰

구강상병은 그 특성상 범발성이며, 부분 만성질환이고 비가역적이지만 다른 질환과는 달리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에 따라 시간 경제 비

용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7][13]. 특히 성인기보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예방관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진 구강건강관리 및 형성된 습관은 성인의 구강건강의 초석이 된다. 선행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많지 않았고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7]. 그러므로 학교구강보건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인지와 실천과 주관적 구강건강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방법의 구강위생 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강건강 인식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객관적 구강상태 요인, 구강보건의식행태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5]. 따라서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가 구강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구강위생용품 인지도나 필요성에 대한 향후 연구를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강위생용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계속관리에 의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16].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구강위생용품의 실천도가 높다는 것은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구강위생용품의 교육의 필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강보건교육은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태

도를 습관화 시켜주고 구강건강의 틀을 잡아 주는 과정으로 단순한 지식의 주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와 행동까지 변화시켜 구강보건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목적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교육자들은 환자의 구강상태에 맞는 구강보건교육 내용을 시행함으로써 환자들이 구강보건 교육을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양적인 교육보다는 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은 자신의 구강에 맞게 선택하고 사용할 때 효과적이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구강건강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16] 구강위생용품을 환자 구강상태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의 세척제양 인지에서 모1/3사용이 3.99 ± 5.09 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실천도에서는 전체사용이 3.71 ± 6.17 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지는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구강보건교육에만 국한 되지 않고 실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생들이 구강위생용품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실천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와 같이 학교 및 의료기관에서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교육과 구강위생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구강보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로는 의료기관이나 TV 또는 라디오에서 주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 및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에서 주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나타난 유수민[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을 통한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습득이 많은 만큼 치과 의사 및 치과위생사와 같은 관련 의료인들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특성상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학업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접근이 쉽지 않다. 특히 청소년기는 TV 나 인터넷

넷 과 같은 대중매체와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구강보건교육의 접근 또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을 학생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구강위생용품을 선택하여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권장을 통하여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식과 사용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한 구강위생용품 사용을 통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기관, 학교, 학부모 및 치과 의료인 등 전문 인력의 공동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구강보건 교육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올바른 교육 목표 설정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면조사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위생용품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추론 할 수 없다는 점과 조사대상자가 K지역 일부 고등학교에 한정된 관계로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함에 있어 제한성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로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구강검사를 통한 객관적 구강건강상태를 관련지어 연구한다면 보다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서은주, “국민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7권, 제2호, pp.177-194, 2003.
- [2] I. D. M. Macgregor and A. J. Rugg-Gunn, “Survey of tooth brushing duration in 85 uninstructed English school children,” Comm

- Dent Oral Epidemiol, Vol.7, No.5, pp.297-298, 1979.
- [3] P. R. Warren, H. Landmann, and B. V. Chater, "Electric toothbrush use. Attitudes and experience among dental practitioners in Germany," American Journal of Dentistry, Vol.11, No.Spec, pp.S3-6, 1998.
- [4] 이영혜, "서울특별시 가정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 제24권, 제3호, pp.239-257, 2000.
- [5] 손기찬, 김공현, 김진범, "부산광역시 12세아동의 영구치우식증실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75-188, 1996.
- [6] 김종배, *임상예방치과학*, 고문사, 2000.
- [7] 김수경,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제2권, 제2호, pp.95-103, 2002.
- [8] 유수민, 안금선, "고교생들의 구강보건의식 행태에 관한 연구 : 경기 이천시 소재 고교,"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3권, 제1호, pp.23-31, 2003.
- [9] 장경애, 성미경, 강현경, 최정옥, 김윤신, "일부 치과병원 흡연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이용도," 제18권, 제1호, pp.7-12, 2008.
- [10] 복혜정, 안분숙, 이희성, "한국성인의 건강행위와 구강건강행위가 치주조직병자율(CPI)에 미치는 영향," 제7권, 제2호, pp.93-100, 2013.
- [11] 박현민, "한국노인의 구강건강행위 및 상태가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8권, 제4호, pp.175-185, 2014.
- [12] E. J. Lee and M. O. Lee,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Dental Health Characteristics of Adult on the Status of Recogni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Dental Hygiene Device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0, No.4, pp.241-250, 2010.
- [13] 소미현, 김선숙, 신승배, "일부지역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학회, 제10권, 제6호, pp.1107-1119, 2010.
- [14] S. H. Kim, J. B. Park, C. W. Lee, K. T. Koo, T.I. Kim, Y. J. Seol, Y. M. Lee, Y. Ku, C. P. Chung, and I. C. Rhyu, "The Clinical Effects of a Hydr oxyapatite Containing Toothpaste for Dentine Hypersensitivity," J of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gy, Vol.39, No.1, pp.87-92, 2009.
- [15] J. H. Ahn, J. H. Kim, J. H. Jang, Y. J. Oh, and Y. D. Park, "Tooth Whitening Effect of Toothpaste Containing Hydrogen Peroxide," J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4, No.1, pp.101-108, 2014.
- [16] 이경희, 정은서, "구강위생용품 관련 교육이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2호, pp.245-256, 2015.
- [17] 김선주, "전라북도 일부 지역 중·고등학생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제9권, 제4호, pp.387-395, 2009.

저 자 소 개

오 나 래(Na-Rae Oh)

정회원



- 2010년 2월 :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4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3년 10월 ~ 현재 : 영남외국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예방치과학, 산업보건학

서 수 연(Su-Yeon Seo)

정회원



- 2011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과 보건학석사
- 2016년 2월 : 영남대학교보건학과 박사수료
- 2017년 3월 ~ 현재 : 영남외국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치과재료학

정 미 애(Mi-Ae Jeong)

증신회원



- 1999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 보건교육연구, 공중구강보건학, 보건학